서 평

인문논총 제73권 제3호 (2016.08.31), pp. 307~319

문명에 대한 새로운 관심

[서평] 김민정 외(2011), 『문명 안으로』, 한길사, 300쪽;
강성용 외(2011), 『문명 밖으로』, 한길사, 332쪽.

최 진 묵*

1. 문명연구에서 예상되는 주제들

위 두 책은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HK사업단에서 내건 '문명의 허브를 향하여; 한국 인문학의 새로운 구상'이라는 어젠다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성과물의 일부이다. 사업단의 어젠다를 언뜻 보면 사업단의 10년 연구목표가 '문명' 자체의 연구, 즉 세계 각 지역과 모든 시대의 문명의 실상을 연구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인문학방면에서 한국을 세계문명의 중심지로 만드는 어떠한 담론들을 만들어 내거나 어떠한 방향성을 제시하겠다는 것인지 다소 모호하다.

사실 연구재단의 인문한국 프로젝트는 인문학연구의 활성화를 통해 각 대학의 주요 연구소를 세계적인 연구소로 키우기 위해 연구소 전임인력을 둔 것이고, 집단연구를 통해 기존 인문학연구의 패러다임을 바꿔 인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자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연구자들은 연구에 전념하면서 세계적인 학설을 제시하거나 어젠다 연구에서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세계적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 해외의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하거나 세계적인 유수잡지에 논문을 기고하는 등등의 방법을 통해 연구소의 위상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그러나 '문명'이란 주제로 특화된 사업단이 어젠다를 통해 연구소의 위상을 높이려면 현재 이 주제와 관련된 공동연구의 방법 이외에는 특별한 수단이 없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문명 안으로』와 『문명 밖으로』에 대한 검토를 하기로 하자.

위 두 책은 사업단 출범 4년여 만에 나온 첫 번째 공동연구의 결과물이다. "안과 밖"이라는 제목만으로 보면 두 책은 자매편인 듯한 인상을 주며, 실제로 문명 내적 세계와 문명 외부의 세계를 각기 살펴본다는 기획의도가 엿보인다. 중국 고전에서도 자주 '내편', '외편' 등의 편명이 등장하는데, 이는 사상적으로 음과 양 혹은 유교적인 것과 도교적인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본인의 저술과 후학의 저술, 정돈된 것과 잡다한 것 등의 다양한 관념을 내포하고 있다. 책 제목이야 어쨌든 공동연구의 경험이 일천한 한국학계의 현실에서, 처음이라는 점에 의미를 크게 부여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지만, 공동논의와 토론을 거친 첫 공동연구의 결실이 나왔고, 이것이 향후 연구에 대한 지표가 된다는 점에서 내부에서의 자체적 평가를 하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본격적으로 두 책을 살펴보기 전에 어젠다에 나오는 '문명'이라는 단어를 염두에 둘 때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연구방향이나 관점, 주제 등을 먼저 거론해보자. 기왕의 문명연구를 검토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눈에 띈다.

① 문명에 대한 거대 담론이다. 이 방면의 연구는 문명의 탄생과 기원, 문명의 교류와 융합, 공존. 문명의 충돌, 문명의 진화, 문명의 몰락, 종말, 붕괴. 문명의 흥망성쇠, 문명의 보편성과 특수성, 문명의 전환, 문명과 문화 등의 다양한 주제들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연구되

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최근에는 '문명의 전환'이라는 말이 학술적 검증과 관련없이 다방면에서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② 문명의 다양한 키워드(요소)에 대한 개별적 연구들이다. 예컨대 문명과 기술, 문명과 바다, 문명과 수학, 문명과 여행, 문명과 질병, 문명과 농업, 문명지도, 문명과 자연, 옥수수문명, 정치와 문명, 축제와 문명, 소금과 문명, 문명속의 물, 담배와 문명, 문명과 반문명, 성과 문명, 문명과 도구, 문명과 야만, 문명과 사회 등이 주로 문명이 관련된 다른 주제어와 병행하여 언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 주제어들이 문명을 설명하는 주요 요소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 밖에 제국, 도시, 과학, 숫자, 문자, 계급, 제도, 시간, 전쟁, 사랑, 쌀, 다문화, 종교, 신, 신화 등도 개별적으로 독립된 하나의 연구주제들이지만, 궁극적으로 문명의 특징으로 설명하고자 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이렇듯 이 방면의 연구들은 모든 단어들이 '문명'과 연관되었다고 할 정도로 망라되어 광범위한 연구들이 축적된 상황이다.

③ 문명에 대한 수식어를 붙인 연구들도 있다. 예컨대 잊혀진 문명, 사라진 문명, 문명의 기억, 문명의 수수께끼, 문명의 숲, 문명의 수레바퀴, 문명 간의 대화, 인류문명 등이 이러한 부류인데, 주로 '문명'에 주로 문학적인 표현을 붙인 것이다. 본 서평의 대상인 『문명 안으로』와 『문명 밖으로』 역시 이러한 부류로 속할 것이다.

④ 문명의 구분문제 역시 관심 있는 주제로 등장한다. 즉 세계 각 지역의 문명을 어떻게 분류 파악하는가의 문제와 연관되는데, 일반적으로 세계 4대 문명과 여타 지역문명으로 구분하는 방법은 매우 전통적이다. 따라서 각 지역문명은 세계 4대문명, 수메르문명, 마야, 잉카, 아즈텍문명, 그리스 로마문명, 아랍문명, 서구문명, 중국문명, 인도문명, 한국문명, 동서문명, 외계문명, 중간문명 등등으로 불려졌다. 이들 연구는 지역심리적 요인으로 문명을 관찰하는 것이 특징이고, 동시에 특정지역이 세계문명을 대표하는가의 문제에 관심

을 집중한다. 한편 분야별로 분류할 경우 정신문명, 물질문명, 과학문명, 기술문명, 청동기문명, 철기문명 등의 구분도 있고, 시기별로는 원시문명, 고대문명, 중세문명, 근대문명, 현대문명 등의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이상의 주제들은 이미 한국에 번역 소개되었거나, 혹은 한국 내 연구자들이 자체적으로 연구 집필한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 일견 위 주제들을 보면 사실상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단어들이 문명과 결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른바 '문명'연구가 매우 포괄적이고 때로는 느슨한 형태의 연구가 될 수 있으며, 동시에 이 방면에 이미 상당한 수준의 연구가 진행되었거나 완료되었음을 느끼게 한다. 문제는 사업단의 연구가 기존 연구의 공백을 어떻게 메우고 있고, 또한 이들 연구수준을 얼마나 돌파하면서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고 있는가에 있다. 이하 두 책을 각기 '문명'의미의 모호함과 다양성, '반문명'의 개념상 문제로 나눠 평해보기로 한다.

2. '문명'의미의 모호함과 다양성

『문명 안으로』는 13편의 글을 3장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1장은 "문명의 탄생"이란 제목으로 '문명'이라는 개념이 서구에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시빌라이제이션(civilization)이라는 단어를 어원학적인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으로 출발한다. 문명과 야만이라는 담론도 초기 '문명(civilization)'이라는 의미를 둘러싼 논쟁을 설명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점을 설명한다. 따라서 제목은 아마도 일반적인 문명의 기원과 탄생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문명'이라는 용어의 등장을 말하고자 했던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두 명의 필자가 각기 관심사를 쓰고 있어 장별 요지를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동아시아에서 '문명'이란 단어로

번역되는 '시빌라이제이션'이라는 용어는 18세기 중반 영국과 프랑스에 동시에 생겨난 개념으로 미개나 비이성과는 반대되어 도시인의 세련된 생활태도를 의미하는 단어였으며, 점차 계몽주의와 결합하면서 의미가 확장되어 당위, 강제, 폭력성을 띠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장은 "중화와 문명, 그 길항의 궤적"이라는 제목으로 4편의 글이 실려 있는데, 주로 '중화'와 '문명'을 대칭적인 두 개의 다른 개념으로 보고자 했던 것 같다. 3장은 "한반도, 문명의 소용돌이로 들어가다"라는 제목으로 근대 조선에서의 종교의 수용과 개신, 조선 지식인, 근대 여성들의 "문명"에 대한 태도가 서술되어 있다.

대체적으로 전체의 글 중 개인적 경험 등을 기록한 수필식의 서술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교양서 수준의 글을 작성하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물과 사상』이라는 대중잡지에 투고한 칼럼류의 원고를 수합하여 실은 것도 이 때문인데, 이로 인해 전체 구도가 반드시 수미상관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아마도 공동연구 초기 구체적인 설계도를 완성하지 못하고 연구를 진행하다가 이후 집필된 원고를 갖고 편집하면서 궁여지책으로 전체 구도를 맞춘 인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전체적으로는 문명이란 단어를 강조하여 '문명'으로 표기하여 서구문명을 지칭하기로 하는 원칙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다름대로 체계적인 구도를 만들려는 흔적은 곳곳에 보인다. 다만 한글문장에 영문 등 외국어가 그대로 노출되는 이른바 비문(非文)도 있지만, 예컨대 '동양'이라는 단어와 같이 학문적인 엄격성이 떨어지는 용어도 등장하며, 『주역』의 비괘(賁卦)를 분괘라고 표기한 것은(19쪽, 147쪽) 등의 사소한 실수 등도 눈에 거슬린다. 그러나 본서의 핵심주제가 여하튼 서구에서의 '문명' 개념의 기원과 형성 및 변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에서의 '문명'의 수용, 근대 한국에서의 '문명화'와 그 이해방식 등에 대한 것이라면, 이러한 본서의 기획 의도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는지는 차치하더라도, 일단 '문명' 그 자체 내부 혹은 본질을 검토한

다는 의도는 충실한 것 같다. 다만 이하에서는 본서의 문명개념과 이와 수반된 논점 등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일반적으로 문명은 인류사회의 진보와 발전상태를 의미하고 인류의 생활방식, 생산활동을 포함하여 기술, 신앙, 예술 등의 모든 정신적 육체적 활동의 발전과정과 그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발전단계로 본다면 몽매나 야만단계를 벗어난 상태를 말할 수도 있고, 역사적으로는 청동기, 문자, 고대국가, 농업, 도시 등이 나타난 시기를 문명시기로 설정하기도 한다. 또한 문명이란 용어는 때로 광범위하게 문화와 혼용하여 사용하는 등 그 용법은 매우 광범위하다. 실제로 학계에서는 '문명'이라는 용어를 서로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본서의 1장에서는 이러한 광의의 '문명' 중에 원초적 개념으로서의 올바른 예법, 교양, 세련됨이라는 의미를 주로 지적하였다. 이는 현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인류문명을 설명하는 개념과는 다르다. '문명'이라는 용어가 초기에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이 의미가 연화되고 파생되는 현상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이후 어원학적 범위를 넘어서 문명의 함의가 넓어진 과정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문명이라는 용어의 형성에 관한 어원학적 설명과 계몽주의 시대 '문명'의 개념의 형성과정을 몇몇 서구철학자들의 신념과 주장으로 설명하는데 치중함으로써 구체적 문명이 생성되는 역사현상,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인류의 성과를 간과하게 될 수 있다. 적어도 19세기 이후 현재까지 문명이라는 용어가 갖는 현재적 의미를 본서에서 포함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1장의 문명에 대한 설명은 이미 기존의 『21세기 정치학대사전』(아카데미아리서치, 2002) 등에 잘 요약 정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하 '문명'이란 표제어에 대한 이 사전의 서술 중 『문명 안으로』의 설명과 논조가 유사한 부분을 인용한다.

① “문명(civilisation)은 18세기 후반에 유럽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로 문화와 함께 서유럽 근대가 도달한 최고의 가치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② “라틴어의 키비스(civis; 시민)나 키빌리타스(civilitas; 도시)에서 유래한 문명은 문화가 cultura (경작)에서 유래하여 농업과 관련한 것에 대해, 그리스 로마의 도시국가의 먼 기억이나 근대의 도시생활과 관련한다. 문화가 전통과 개별성을 강조하고 과거 지향적인 것에 대해 인류의 진보와 이성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문명은 미래 지향적인 개념이며 그 결과 문명은 서유럽 당시의 선진국(프랑스, 영국, 미국 등)으로 확대되고, 문화는 후발국(독일, 폴란드, 러시아 등)으로 확대되었다.”

③ “문명과 문화의 대항관계는 프랑스와 독일의 대항관계에 여실히 나타나 있다.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에서 프로이센-프랑스 전쟁을 거쳐 제1,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양국은 각각 문명과 문화라는 이름하에 전쟁을 반복하였던 것이다. 현재도 또한 프랑스의 제1의 가치는 문명이고, 독일의 제1의 가치는 문화로 프랑스의 국민사가 항상 문명사의 형태를 취하는 것에 대해 독일의 그것은 문화사이다. 문명은 과학기술이나 물질적인 가치를, 문화는 정신적인 가치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일본에 보급된 독일적 통념으로 프랑스에서는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종합한 보다 높은 가치가 문명이다.”

④ 일본에 있어서 근대국가의 형성은 처음에는 문명화(문명 개화)로서 추진되었다.

⑤ “기조의 『유럽 문명사』와 버클(Henry Thomas Buckle)의 『영국 문명사』(1861)를 모범으로 하여 쓰여진 후쿠자와유키치(福澤諭吉)의 『문명론의 개략』(1875)은” (116쪽)(이상 『21세기 정치학대사전』에서 인용)

위에 인용한 다섯 가지가 『문명 안으로』의 내용을 총괄하는 것은 물론 아니고, 이미 일반화된 지식으로 누구나 충분히 언급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하다. 사전이 당대 지식의 종합과 총결이라고 할 때 『문명 안으로』으로 내용이 위 사전적 지식의 범주에 있다는 것은 '문명'에 대해 서술이 매우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결론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논증방법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어떤 주제의 연구에서 사전적 서술을 넘어서는 것이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창출이라는 점에서 가치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면, 적어도 3여년의 공동연구를 통해 이미 알려진 사실을 재확인하는 정도로 만족해야 하는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둘째, '문명'(본서에서는 주로 서구문명을 지칭함)화와 유럽화, 서구화, 근대화, 미국화를 동일시하거나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철두철미하게 문명화(서구화)를 관철시키고자 했다"(231쪽) 등등이 그런 부분이다. 문명화와 서구화는 확실히 다른 개념이며, 특히 근대화와도 다르다. 동아시아 근대의 성립을 '문명화'라고 칭하는 것은 역으로 근대 이전에 동아시아에는 문명이 없었다는 뜻이 될 수 있다. 결국 '문명'의 원초적 의미를 너무 강조함으로써 일반화된 문명의 의미를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심지어 중화(中華)와 '문명'을 대비함으로써 전통 중국인들의 문명관과 세계관을 혼동시키는 경우도 있다. 중화는 전통 중국인들의 세계관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고 문명관으로 보는 것은 어색하다. 중화가 문명관이라면 문명의 개념은 너무 모호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2장의 구도를 중화와 문명으로 대비한 것은 여하튼 찬성하기 어렵다. 이런 관점에서 "근대 유럽의 문명은 세계에 대한 각각의 질서구상이다"(197쪽)라는 문장은 독자를 혼란에 빠뜨리게 한다. 그러나 이는 "문명"에 대한 이해와 해석의 문제라고 강변할 수 있지만, 이럴 경우 문명을 가장 좁게 해석한 1장이 글과 2장의 글들이 문명해석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 어색한 번역이 있고, 이상한 용어들이 적지 않다. “臣之慾變者是器也非道也”(196쪽)은 “신이 변화를 바라는 것은 바로 기이며 도가 아니다”라는 번역보다는 “신이 바꾸고자 하는 것은 기이며, 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할 것 같지만 그냥 넘길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소국 한반도”(193쪽, 194쪽)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아마도 문맥상으로는 조선(朝鮮)을 말하는 것 같은데, 필자는 과문한 탓에 이러한 표현을 도무지 본 적이 없다. 한반도는 지리적 개념이므로 역사성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이 표현만 보면 조선을 연상하기 쉽지 않다. 특히 소국이라는 말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도 의아하다. 국토의 크기야 어찌되었던 한국의 정식국호에는 ‘대한(大韓)’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가? 따라서 이 용어는 문학작품이 아닌 한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학술적으로도 용인하기 어려운데, 이러한 부류의 문장이 종종 등장한다. 예컨대, “지리 문화적 존재로서의 동양이 본질적으로 20세기초 일본의 관념이다.”라거나, “‘동양사’라는 영역에서의 학문 활동을 통해 근대 일본이 아시아의 최선진국으로 유럽과 대등한 나라이며, 중국과 다를 뿐만 아니라 문화적 지적 구조적으로 더 우월하다는 내러티브를 만들어냈다”(120-121쪽)라는 문장은 일본학자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이 역시 동의하기 어렵다. 또한 중체서용의 실패를 증명한 사건은 청일전쟁뿐만 아니라 청불전쟁도 당연히 언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아시아 문명패권의 이동」이란 글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문명수입의 논리로 캉유웨이(康有爲)와 량치차오(梁啓超) 및 천듀슈(陳獨秀)만을 언급하고 있지만, 당시 실패한 개혁파보다는 성공한 혁명파의 논리를 보충할 필요가 있고, 『신민총보』와 더불어 『민보』의 입장을 아울러 언급해야 정확한 당시 중국의 실상을 전달하게 될 것이다. 천듀슈를 넣었다면 당연히 자유주의자 후스(胡適)도 거론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의도하지 않은 인위적인 인물선정이 역사자체를 왜곡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넷째, 견강부회하게 ‘문명’을 끌어들여 서술하거나 논지를 전개하는 글도 있다. 종교야 말로 문명의 한 축이고 문명을 설명할 때 불가결한 요소이지만, 근대 이후에는 ‘탈종교’ 혹은 ‘종교후’라는 용어를 쓸 정도로 종교 자체를 벗어나려는 움직임 역시 만만치 않다. 따라서 종교의 개혁이나 종교 내의 변신을 종교의 문명관으로 설명하는 것은 ‘문명’이라는 용어를 쓰기 위한 문명론에 불과하다는 인상이 강하다. 또한 ‘문명’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붙어도 의미가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해도 “남성들이 만들어 놓은 문명화의 길”, “자본적의적인 ‘야만적 문명’” 등도 적절한 표현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

결국 『문명 안으로』는 문명 개념의 다양성과 모호성을 다시 한 번 독자들에게 확인시켜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기존연구를 새롭게 돌파한 것도 같지도 않고, 이미 연구되어 알려진 사실을 반드시 요령 있게 정리했다고도 평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연구’로서의 가치를 어느 정도 부여할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다. 다만 이것이 교양서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점, 공동연구의 첫 걸음이라는 점, 사업단의 ‘문명’연구가 이 상태에 계속 머물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부정적인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할 필요는 없을 지도 모른다.

3. ‘반문명’의 개념상의 문제

『문명 밖으로』는 주류문명에 대한 저항과 거부라는 부제를 붙여 이른바 반문명의 양상을 소개하려는 글이다. 아마도 의도는 문명자체를 저항 거부하거나 혹은 문명비판적 흐름이나 사상, 운동, 혹은 문명을 초월하고자 하는 노력 등을 반문명으로 정의하고, 이를 ‘문명의 밖’이라고 규정하고자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반문명은 「책을 내면서」에서 언급한 대로 문명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로 이해할 수도 있고, 문명의 대척점

에 서있는 반의어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따라서 문명과 반문명의 관계는 문명과 야만, 인위와 자연, 사회와 반사회(혹은 세상과 자연), 제도와 본성, 주류와 비주류, 정통과 이단, 현실권력과 권력비판, 진보와 정체(혹은 퇴보), 이성과 비이성, 합리와 불합리, 질서와 폭력 등의 대칭적인 개념으로 모든 사상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다.

실제로 우주와 자연 인간사를 이원 대립적으로 보는 관점은 일찍이 중국 고대에 음양설로 존재해왔고, 하늘과 땅, 해와 달, 산과 물, 남쪽과 북쪽, 남자와 여자, 군주와 신하 등등이 종종 양과 음으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이분법은 언뜻 보면 매우 그럴듯하며, 자연에 이 논리를 적용했을 때 상당한 신뢰감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문명" 자체도 이러한 이분법으로 설명가능한지는 의문이다. 부제에서 "주류문명"이라고 말했다면 논리적으로 "비주류문명"도 있어야 하지만, 그러한 구분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도 모르겠고, 문명의 한 면만을 강조하여 문명 전체로 정의하는 것 자체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한다. 필자는 문명은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독립하면서 만든 인간의 육체적 지적 노동의 모든 결과물 즉 성취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생산력 발전에 따른 분업이나 계급화 혹은 이와 수반된 각종 제도 및 도덕 법률 형벌을 포함하며 전쟁이나 착취 폭력 등은 물론 학문과 예술 종교 등도 문명의 범주에 넣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반문명의 범주에 포함될 이단이나 비주류, 폭력, 야만, 권력비판은 물론 반사회주의 역시 일종의 문명현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반문명적", "반문명성"으로 떠올리는 테러나 전쟁, 침략, 기아, 범죄, 무질서 등은 문명의 원초적 의미를 지나치게 강조한 것이지만, 역사적 현상으로 나타난 모든 것을 문명으로 인정한다면, 착취나 불평등, 분배의 불균등 등은 문명의 모순으로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문명에 대한 개혁론이 등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문명에 대한 실망과 환멸 비판은 문명적 요소의 가치부정과 새로운 문명이나 유토피

아에 대한 기대로 이어졌을 것이다. 혹은 왕조말기나 변혁의 시기에 미륵의 도래나 신시대 대망론 등도 제출된 것은 현실에 대한 개혁이나 도피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 뿐 문명현상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문명에 대한 참여거부와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특정 시대에는 이러한 사조가 주류적 현상으로 등장하기도 하였지만, 그 자체도 역시 문명적 현상의 일환으로 보는 것도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문명 밖으로』에서 언급된 대로 "문명을 벗어났지만 역시 문명적"이라는 구절이 이러한 현상을 적절하게 표현한 것 같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문명 밖으로』에서 언급한 반문명의 개념과 그 내용은 다소 어색하다. "문명 밖"이란 제목과 그 안에 서술된 주제들의 불일치가 두드러질 수 있다. 이리하여 억지로 문명이란 단어를 집어넣은 듯한 문장도 적지 않고 문명이란 단어가 거의 들어있지 않는 글도 있다. 책의 기획의도를 고려한다면 문명비판, 문명에 대한 거부, 문명의 모순에 대한 개혁에 관한 글만이 본서에 포함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따라서 이단 종파에 관한 글, 이탁오에 관한 글, 무속서사시 등은 본서에 적합한 글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특히 「무속서사시」로 제목붙인 글은 '문자문명', '가부장적 문명'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문명이라는 용어를 남발하고 있다는 인상이 남는다. 문자는 역사상 문명을 형성하는 조건 중의 하나이므로 문명의 본질에 해당되는 것이고, 구술문화와의 대비로 쓸 수 있는 개념은 아닌 듯하다. 문자의 종류나 다양한 문자의 형성과 유전, 문자의 구조, 역할 등의 문제를 다룰 때 비로소 '문자와 문명' 혹은 '문자문명'이라고 칭할 수 있을 것이다. 「무속서사시」에서 말하는 문자문명은 아마도 기록문화를 의미하는 정도로 추측된다. 그러나 구술문화 역시 문자기록을 남기지 않는 – 특히 중국인들이 이웃의 역사까지 기록한 것에 비해 고대 한국인들은 이상하게도 역사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 문화적 전통 속에서 이해해야 하며 이 역시 문명현상의 한 특징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구전 혹은 구술문화가 어떻게 반문명(문명비판)이란 말인가?

4. 여론

광의로 해석할 수 있는 문명이 인류사회의 진보형태를 의미하고 문화, 기술, 사상, 사회제도 및 조직 등을 포괄한다고 이해할 때 문명의 단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논리적으로 그 단계를 문명, 반문명(半文明), 반야만(半野蠻), 야만이라는 네 개의 단계로 설정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문명단계에 있는 사회나 국가 혹은 지역은 자신의 문명의 내용을 하나의 표준으로 설정하고 여타 사회나 지역을 문명화하고자 했던 것이 사실이다. 거시적 역사로 보면 근대 서구가 동아시아를 포함한 여타 지역에 이러한 문명화를 강요했고, 로마나 전통중국 등이 주변지역을 문명화시키거나 혹은 교화해야 할 사명을 갖는 것으로 생각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발상은 자아와 타자의 이분법적 사고의 산물이다. 사실 문명단계의 차이는 제도상의 차이이거나 문명정도의 차이일 수 있고, 혹은 지리적 환경과 문화적 인소 등에 의한 인류문화의 다양성의 결과로 볼 수도 있다. 특정 문명의 전 세계로의 보편화과정이 곧 '문명화'는 아니며 특정문명의 문화요소가 문명의 표준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반문명(半文明)을 염두에 둔다면 문명단계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모두 비문명(非文明)은 아닌 것이다.

확실히『문명 안으로』와『문명 밖으로』의 두 권이 책이 우리에게 새삼 문명의 개념과 그 변화 및 적용과정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문명'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문명'의 어원학적 기원과 그 변화 및 그 개념의 전파과정 등을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연구는 자연스럽게 역사상 존재하는 세계문명을 다양한 기준에 의해 분류하고 그들 문명 간의 교류, 융합, 충돌과 반목 등의 현상을 탐구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후 문명의 통합, 문명의 방향성, 문명을 넘어서는 인류사회의 새로운 담론 등에 관한 전망과 고민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이 두 권이 책이 '문명'연구의 완성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면, 향후 사업단의 다른 공동연구에 기대를 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